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9.(수) 11:00 < 10.10.(목) 조간 > 배포 2024. 10. 9.(수)

한국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 온라인 개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0.8.(화) 2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하였다.

* 글로벌철강포럼(GFSEC) :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G20 항저우 정상회의('16.9월) 계기로 출범한 포럼으로 한국, 미국, EU, 일본 등 27개국 가입

금번 회의는 포럼의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써,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 하에 추진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3년 5억 5천만 톤에 달하고 ’26년 6억 3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히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철강산업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철강생산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본 포럼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다” 며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 해당 회의(GFSEC Ministerial 2024) 결과의 세부내용 및 선언문 원문은 10.9.(수) 오전 1시 이후 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ecd.org/en/events/2024/10/ministerial-meeting-of-the-global-forum-on-steel-excess-capacity.html)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김다은 (044-203-46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